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 인권교육

필요할까요?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 사업은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 인권교육, 왜 필요할까요?

누구나 미디어 생산자가 되고 동시에 미디어 소비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인 양 그대로 전달되어 허위정보 및 불법 정보가 확산되고, 편견과 선입견이 강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기관, 미디어관련 정책 기관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산을 위한 수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유튜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미디어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은 일반적인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인권교육보다 더 예민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말 한마디, 몸짓, 태도가 해당 당사자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소수자를 배제하고, 사람들을 차별과 배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헌법적 가치인 '인간 존엄', '평등',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연대성' 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인권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속 혐오와 차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허위정보에 근거한 혐오와 차별

유튜브 콘텐츠의 일방적이고 적대적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공존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2018년 제주에 머물고 있던 예멘 난민에 대한 갈등은 당시 '한국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주장과 여성 억압적 문화를 가진 무슬림 문화의 유입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 '가짜 난민' 등과 같은 혐오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급속도록 확산된 사례이지요.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개인적 이해관계와 소수자 집단이 충돌하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어, 혐오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몰고 갔습니다. 특정 종교 및 난민이 속한 인종, 문화, 지역에 대한 왜곡된 허위정

보에 기반한 혐오표현은 해당 종교 및 지역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더 나아가서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나는 혐오,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 또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혐오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슬람포비아'라는 무슬림에 대한 일방적 혐오와 적대감은 다문화 시대, 공존의 가치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으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건축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 임시 기도소 앞에서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바비큐 잔치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재개에 주민 반발 이유는?
(유튜브 채널 GOOD TV, 2021.8.13.)

(OOO 교수)
이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문화적 접근이에요. 문화적 접근으로 그 지역을 섭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게토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게토화라는 건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작업을 하죠. 안정권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죠.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국민대회 (유튜브 채널 CTS뉴스,2023. 5. 31.)

(OOO 목사 /대국위 공동대표)
애초부터 동의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설계가 이슬람 사원 측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철회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서명활동과 관련 사진 전시회, 그리고 '돼지국밥'과 '바베큐' 파티도 진행됐습니다.

혐오는 더 큰 혐오를 ...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성된 혐오표현은 다시 뉴스 댓글 등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댓글 창에는 건강한 비판과 논쟁은 없고 사건의 본질을 떠나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혐오가 넘쳐납니다. 혐오가 혐오를 낳고, 그것이 더 큰 혐오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공격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장연 시위에 아침마다 '지각확인증' / 채널A #shorts
이 영상에 붙은 댓글 중 일부
- 약자의 가면을 쓴 테러리스트
- 진짜 국익에 1도 쓸모없는 인간들
- 장애인들이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나.. 왜 저렇게 땡깡인지. 지금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4%라고하고, 앞으로 설치

안 된 곳도 설치 예정인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여서 매일 저러는거임

TV조선 <조선족, 한국인만큼 실업급여 받는다> #shorts -왜 우리 세금으로 조선족에 실업기금을 주나 말도 안돼 -진짜 말도 안됩니다. 왜 울국민이 조선족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조선족이 무슨 동포냐 조선시대냐

피해자가 조롱을 당한다고요?
- 혐오의 비즈니스화가 낳은 악의적인 혐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방송 내용 등에 등장하는 혐오 발언의 내용 및 공격성이 후원수익 증가율 및 광고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

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구조에서 설사 제작자가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혐오 콘텐츠만큼 대중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익구조에서 '위안부 피해자',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사건',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혐오가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의 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혐오는 재미가 될 수 없습니다. - 일상 속의 혐오

혐오와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맘충', '급식충', 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의 '극혐한다'는 표현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써왔던 말에도 혐오와 차별이 깃든 표현들이 많습니다. '벙어리장갑', '절름발이식 행정', '눈먼 돈', '외눈박이의 시각', '권력에 눈먼', '여의사', '여교사', '미망

인', '자매결연', '유모차', '출생' 등과 같은 말이 그 예입니다.

얼마 전 강남구청 홍보용 유튜브 "킁킁, 비싼 냄새가 나. 촌스럽게 그만 쳐다봐"가 '지방 비하 논란'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명 유튜브 채널이 강남구의 외주를 받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맞잖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처음 봤단 말이야" 등 지역 차별 비하 발언 등을 내뱉어 유튜브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강남구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해당 채널에서도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인권감수성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다를 수는 없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행위가 완전한 별개의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의 미디어환경에서 미디어를 읽고 쓰는 것 역시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제안하는 교육 역시 내용 면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다양한 인권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을 기획-콘티-촬영-편집처럼 필수적인 제작 과정의 하나로 만들도록 제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육의 주제는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유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차시〉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이유는? 유튜브와 인권의 만남

: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 경험 속에 담겨 있는 인권적인 요소를 생각해 본다.

도입

: 내가 유튜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험 나누기

: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경험 나누기

토론하기

: 유튜브와 인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2차시〉 혐오는 재미가 될 수 없다

: 유튜브 콘텐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혐오표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도입

: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현들 찾아보기

혐오표현이란?

: 혐오, 혐오표현 등의 개념과 사례/ 말과 글, 몸짓, 태도 시선 등에 내재되어 있는 혐오표현/ 일상적인 혐오표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토론하기

: 모욕과 멸시가 내재된 혐오표현을 장난이나 재미를 위해 써도 될까?

〈3차시〉 혐오는 더 큰 혐오를 낳는다

: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래거시 미디어 등을 계속 순환하는 특정 혹은 불특정 대상의 혐오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도입

: 콘텐츠에서 묘사되고 있는 범죄나 참사의 피해자들

혐오와 2차 피해

: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혐오/ 댓글로 다시 소비되는 혐오/ 피로도를 증폭시키는 혐오의 굴레

토론하기

: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콘텐츠 기획

〈4차시〉 차이 혹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편견과 선입견이 강화된 사례를 찾아보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도입

: 허위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혐오와 차별의 폭력성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부정/ 편견과 선입견의 강화/ 폭력으로 귀결되는 혐오와 차별

토론하기

: 유튜브 콘텐츠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5차시〉 인권친화적인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 인권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 콘텐츠를 함께 공유, 평가

도입

: 콘텐츠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적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콘텐츠 제작

: 조별, 개인별/ 자유 주제/ 도입부의 인권적 요소 반영하기

토론하기

: 조별, 개인별 제작 콘텐츠를 함께 보고 도입부에서 제시했던 인권적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찾아보고 의견을 나눈다.